

# 불교와 스님들 타락상에 대한 풍자 넘쳐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④ 호랑이로 변한 현장법사

달떨어진 지혜지만 지혜가 앞장서던 길과 계속 잘 안 지키는 욕망에 따라가는 길이 갈을 수가 있다. 손오공 쫓아낸 현장법사 일행, 제 발로 요괴 소굴에 떨어진다. 아무리 눈이 어둡기로 그럴 수가 있나? 당연히 있지! 이야기를 들어봐!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삼재 선생이 요약 압축 실력을 좀 발휘해야 할 듯~

저팔계 먹을 거 찾다고 나서서 농팽이, 낮잠 꿀꿀~ 그 저팔계 찾아 나선 사오정 이리저리 ~ 돌레돌레~

혼자 기다리던 현장법사, 이리 저리 산 보살이 걷다가 거룩한 불탑을 보았네.

환희심 내어 찾아보고 보니 황포(黃袍)요괴라는 흉악한 요괴의 소굴~

당연히 털커덕 잡혀 다음 끼 식사거리로 대가~

그런데 황포요괴, 요괴에 걸맞지 않은 예쁜 부인이 있다. 보살국이라는 나라의 백화수(百花羞)라는 공주인데 요괴에게 납치되어 억지로 요괴부인노릇 하는 중...

요괴가 뒤늦게 달려온 저팔계 사오정과 싸우는 사이 현장법사와 요괴부인 속닥 속닥~제가 요괴 남편 설득하여 풀어드릴 터이니 보살국에 들리셔서 제 사연 전해 주소서. 그리하여 눈물 젖은 보살국 공주의 편지를 품에 안고 현장법사 일행 무사히 요괴 굴을 벗어난다.

보살국에 당도하여 국왕 알현하고 편지 전하니 우선은 눈물바다~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다음은 분노의 바다~내 딸 납치해간 요괴 놈을 당장에!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요괴 잡아오겠다고 나서서 이 없다. 여기에 팔팔이 저 팔계의 명예심과 만음이 작열! 팔 걷고 나서서구나. 할 수 없이 사오정까지 뒤따라 나서 다시 요괴 소굴 찾아가 한바탕 해보지만 역시 돌이 담벼도 이기질 못한 다. 거기에 다시 저팔계의 농팽이가 작열! 아우야, 자연이 나를 부르는구나. 잠깐 뒤집고 올게 혼자 좀 싸우고 있어.

돌이 싸워도 힘든 싸움에 혼자 감당이 되겠어? 사오정 비참하게 패해 잡혀 들어가고 요괴는 공주 부인을 의심하여 사오정을 심문한다.

“공주가 돌래 자기 구해달라는 편지 보낸 거지?”

사오정 재주는 별로지만 심지가 끈다.

여차저차 공주를 위해 변명~

요괴는 공주에게 의심한 것을 사과하고 현철한 장부로 변신하여 보살국왕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정식 사위로 등록! 저는 사냥꾼으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던 공주를 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도술을 배워 당나라 중으로 둔갑해서 여기 와 있군요. 사위인 제가 그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현장법사에게 푸~하고 물을 뿌려대니 현장법사가 호랑이로 짜잔~

요괴가 의인(義人)으로 변하고 성승(聖僧)은 요괴 호랑이가 되었는데, 저팔계는 농팽이 중, 사오정은 요괴소굴에 잡혀 있는 중, 현장법사 호랑이 요괴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중, 이거 다 끝난 이야기? 아니다! 마지막 히든카드, 용마(龍馬)가 있다. 요괴가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틈을 타 과감히 담벼들어 보지만 역시 힘이 달려~ 형편없이 두들겨 맞고 도주...

농팽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저팔계 돌아와보니 부상당한 용마만이 눈물로 맞는다.

저팔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때려치우고 고가장으로 돌아가 사위노릇하며 지낼 궁리~용마가 설득한다. 그래선 아니되지! 대도를 향한 이 길을 그리 쉽게 그만두어선 아니되지. 원승이 사형을 찾아가 달려서 데려와요. 저팔계가 대꾸한다. 원승이 사형을 날 보면 폐기부터 할 걸? 여의봉 한방이면 난 그대로 끝이야.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소. 원승이 사형이 그래도 스승 생각하는 마음 간절하니 잘 달래면 반드시 달려올 게요. 설왕 설래~여차저차~그래서 저팔계 화괴산 수렴동으로 달려가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던가? 저팔계가 은근히 사람 속여 꼬드기는데 재간이 있다.

슬승 감정을 자극한다. 현장법사가 늘 원승이 사형을 그린다오~

그리고 늘 원승이 사형이 제일이라고 한다오~

손오공, 코골이 쩡~그래도 사부가 날 알아주고, 날 그리워하는구나~

저팔계 본격적으로 공작에 돌입! 그런데 그 사부가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전말은 여차저차... 그 요괴한테 원승이 사형 이야기 했더니 코웃음 치며 그 따위 원승이는 단매에 때려 죽여 원승이

욕질을 담아버리겠다 합니다.

손오공 펄펄 뒹다. 이놈의 요괴 녀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역시 내가 아니면 안되지! 한번 스승은 영원한 아버지! 자! 이제 다시 손오공과 황포요괴의 한 판 대결이 시작될 판~

어? 나칠계님 왜 처음부터 불뚱한 표정을? 으흠... 앞의 이야기에 여차저차가 너무 많았나? 요약 압축 실력을 보인단다! 결국 모두 여차저차로 넘어가 나가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대목은 모두 여러분들이 뛰어난 상상력을 채워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도 감탄할 그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라구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서유기 한권이 나오는 거죠. 여차저차~ 나올 때마다 상상력 동원력을 내리세요! 하하!

자,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요? 욕망의 부추김을 받아 지혜를 추출했으니 험한 꼴 당하리란 것을 불을 보듯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아직 제 성질 못 버리고 발끈 발끈하지만 요괴 알아보는 눈하고 싸움 실력은 저팔계 사오정 다 합쳐도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 손오공을

내 쫓았으니 어찌 되었어요? 자비심 넘치고, 수행에의 의지야 철벽처럼 굳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지요. 당장 거의 본성적으로 게으름을 타고난 저팔계의 농팽이가 사단을 불러일으킵니다. 먹을 거 구하러 가서는 피질러 지게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걱정된 현장법사가 저팔계 찾아오라 사오정 보내고, 혼자 있기 무료하여 산보 나선 것이 요괴의 골로 떨어져 버립니다. 걸보기에는 거룩한 불탑 같은데 실은 요괴 소굴! 황포요괴라는 요괴에서도 괴수급 되는 요괴의 소굴이네요.

이 대목 역시 서유기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지 않았는가 싶어요. 서유기 곳곳에는 은근히 불교와 스님들의 타락상에 대한 풍자와 고발이 깔려 있거든요. 걸보기에는 거룩한 불탑, 속 들

여다보면 요괴소굴! 현실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꼭 불교만 말할 필요 없지요. 수많은 사고들 보세요. 걸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한가요? 속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추악한가요? 그런 사고들이 저질러온 끔찍한 사건들...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만 해도 또 얼마나 많은가요? 거룩한 불탑의 외형을 가진 요괴소굴이라는 그림은 아마도 이런 사이버 종교의 모습과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꼭 불교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구요. 언제나 바른 종교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모든 종교는 흉악한 요괴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더더욱 추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현장법사 요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당나라 성승의 고기라면 죽고 못 사는 요괴, “이게 웬 떡이냐!”하면서 탁 잡아채 버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뒤늦게 잡자던 저팔계 깨워 달려온 사오정이 요괴 소굴 찾아내고 현장법사 구하러 싸움을 벌이지만, 이 요괴가 정말 보통을 넘는 요괴네요. 돌이 담벼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행히 요괴의 잡혀와 요괴부인 노릇하고 있던 백화수(百花羞) 공주(미모로 모든 꽃들을 기죽이는 공주란 뜻)의 도움으로 요괴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 벗어난 게 아닙니다. 공주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 다시 벌미가 되어, 현장법사가 요괴의 술법에 당해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손오공이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물리는군요. 어허, 나칠계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역시 손오공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전개... 너무 뻔한 전개 아니냐구요? 그래요. 뻔해요! 그렇지만 손오공 불러오게 하는 주체가 용마인데, 그 용마가 손오공을 불러오려 생각하는 대목의 제목이 “뜻 말이 마음 원승이를 생각하네!”(意馬憶心源)라고 된 의미는 아세요? 뻔한 전개 같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라구요. 다음 시간에 그 의미 해석해 드릴테니, 미리 생각이라는 것도 한번 해가지고 오시라구요!

헤헷! 독자 여러분께 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나칠계님께... 다음 주에 봐요.



그림 · 최주현

### 황포요괴 술수에 변해 보살국서 처형 기다려 거룩함 속에 타락 묘사

여다보면 요괴소굴! 현실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꼭 불교만 말할 필요 없지요. 수많은 사고들 보세요. 걸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한가요? 속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추악한가요? 그런 사고들이 저질러온 끔찍한 사건들...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만 해도 또 얼마나 많은가요? 거룩한 불탑의 외형을 가진 요괴소굴이라는 그림은 아마도 이런 사이버 종교의 모습과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꼭 불교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구요. 언제나 바른 종교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모든 종교는 흉악한 요괴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더더욱 추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현장법사 요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당나라 성승의 고기라면 죽고 못 사는 요괴, “이게 웬 떡이냐!”하면서 탁 잡아채 버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뒤늦게 잡자던 저팔계 깨워 달려온 사오정이 요괴 소굴 찾아내고 현장법사 구하러 싸움을 벌이지만, 이 요괴가 정말 보통을 넘는 요괴네요. 돌이 담벼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행히 요괴의 잡혀와 요괴부인 노릇하고 있던 백화수(百花羞) 공주(미모로 모든 꽃들을 기죽이는 공주란 뜻)의 도움으로 요괴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 벗어난 게 아닙니다. 공주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 다시 벌미가 되어, 현장법사가 요괴의 술법에 당해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손오공이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물리는군요. 어허, 나칠계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역시 손오공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전개... 너무 뻔한 전개 아니냐구요? 그래요. 뻔해요! 그렇지만 손오공 불러오게 하는 주체가 용마인데, 그 용마가 손오공을 불러오려 생각하는 대목의 제목이 “뜻 말이 마음 원승이를 생각하네!”(意馬憶心源)라고 된 의미는 아세요? 뻔한 전개 같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라구요. 다음 시간에 그 의미 해석해 드릴테니, 미리 생각이라는 것도 한번 해가지고 오시라구요!

헤헷! 독자 여러분께 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나칠계님께... 다음 주에 봐요.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쫄**”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산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영광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청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 규격화 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4구 / 인진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균등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인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역 용품

임자형 S형 T분리형 LEDA형 LED후디형 안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